

제5차 한국·OECD 공동세미나 개최

외교통상부는 OECD 산하 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위기와 한국의 에너지외교(Energy security crisis and Korea's energy diplomacy)”를 주제로 지난 11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OECD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불안정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문제가 주요 외교적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 에너지 안보위기와 우리나라 에너지 외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향후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경태 전 주OECD대표부 대사 주재로 열린 제 1세션은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하여, 김진우 동북아에너지 연구센터장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이니셔티브로서 현 상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김재두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세계에너지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 James Haywood IEA 사무차장 특별고문이 IEA의 석유안보 관련 비상대책수단을 소개하는 동시에 공급안보와 관련한 당면과제에 관해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문영석 에

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부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정책 전환기조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1세션 발제가 끝나고 정한구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준범 한국석유공사 조사연구팀장, 이병욱 전경련 산업조사실 상무보, William Ramsay IEA 사무차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선준영 전 UN 대사 주재로 열린 제2세션은 “한국 에너지 외교의 도전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하여, 이재승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한국 에너지 외교의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정용칠 외교통상부 아중동국 심의관이 한국의 대아중동 외교의 중요성과 그 방향에 관해 발표하였다. 또한 도경환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이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미래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마지막으로 William Ramsay IEA 사무차장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었다. 본 세션에서는 윤상수 외교통상부 국제에너지물류과장, 박용덕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Gao Shixian 중국 에너지연구소 에너지경제개발전략연구센터 과장, James Haywood IEA 사무차장 특별고문, 권원순 한

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IEA, 외교통상부 · 산업자원부 등 유관 부처의 에너지 및 지역전문가, 주한 외교관, 외교안보연구원 · 세종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유관 연구기관 연구원, 에너지 및 국제지역학과 교수 · 학생, 전경련 ·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언론인 등 약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세미나의 전 내용은 K-TV를 통해 방영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에너지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북아지역의 장기적인 에너지협력 체계 구축을 과제로 지목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보다 광범위한 안보 차원에서 고려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에너지협력은 배타적인 블록개념이 아닌 세계적 협력 및 외교의 관점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OECD 관련 유럽 확대의원총회 참석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경제 전망, 구조개혁 노력 및 성과, 지속가능발전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구주협의회 차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OECD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유럽확대의원총회(Enlarged Parliamentary Assembly)”가 “OECD와 세계경제”를 주제로 10월 5~6일간 프랑스 스

트라스부르크에서 열렸다. 동 총회와 더불어 부대행사인 “의회지도자를 위한 OECD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가 10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OECD 회원국 중 구주협의회(Council of Europe)에 직접 속하지 않는 비회원국, 즉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아태지역국 대표가 초청되었으며, 우리 측은 엄호



성 국회의원과 양승조 국회의원이 확대의원총회 및 기업지배구조세미나에 참가하였다.

확대의원총회에서는 Schlogl 사무차장의 세계경제동향에 대한 전망 및 터키 대표단의 “OECD와 세계경제” 보고 등에 이어 우리측 대표단 엄호성 의원이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경제의 근본체질을 개선 중이라는 요지의 기조발언을 하였다. OECD 기업지배구조세미나에서 우리 측 대표 양승조 의원은 한국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및 입법부의 제도적 보완책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 OECD 사무국에 진출한 한국인 정규직원 수가 우리의 분담률 등에 비추어볼 때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우리 대표단의 지적에 대해 Schlogl 사무차장은 OECD 차원에서도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무국 직원 구성 개선책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의 금번 회의 참석은 OECD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과제에 대한 구주협의회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공통관심사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구주 각국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의원들과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함께 OECD 및 EU간의 관계비중이 증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참석 및 활동이 요구된다. ◀●

Johnston OECD 사무총장 방한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이 매일 경제신문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주최하는 제5차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 참석 등을 위하여 10월 10~14일간 방한하였다. Johnston 총장은 방한 기간 동안 동 포럼 참석과 함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및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김대중 전 대통령 주최 만찬행사 참여 등 우리 정부인사와 폭넓은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12일 세계지식포럼 개막식과 13일 OECD 총회(OECD Plenary)의 연사로 참석한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식공유의 중요성과 아울러 21세기 경제성장의 중심으로서의 아시아와 이를 위한 한·중·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반도 안정이 이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 총회에서는 점차 복잡해지는 세계경제하에서 지역적 경계를 넘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무총장은 매일경제를 포함한 포럼 관련 각종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는 성숙단계에 들어섰지만 조기고령화라는 복병을 만났으며 성장을 통한 분배에 정책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한국경제가 처한 최대 불안요인이 내수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수출이 둔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이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10월 13일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접견하여 OECD 회원국 확대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최근의 고유가에 대하여는 원유의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면서, 유가가 앞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울러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